



귀여한 슈퍼불구와 귀어-불구 시간성 속에서 다른 미래를 사유하기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중심으로*

이문우**

〈차례〉

1. 들어가며
2. 매드 사이언티스트(Mad Scientist)와 귀여한 재생산의 욕망
3. 귀여한 슈퍼불구와 프릭-몬스터의 탄생
4. 귀어-불구 시간성과 윤리적 사유에의 요청
5. 나가며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불구 이론(crip theory)의 관점에서 영화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독해하며, 주란의 죽음으로 인해 주로 닫힌 결말로 해석되어 온 이 영화를 귀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통해 관객에게 역사 속에서 다른 미래를 사유하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텍스트로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주란을 귀여한 슈퍼불구로 독해하며, 교장을 제국의 규범을 초과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자 귀여한 재생산을 욕망하는 귀여한 어머니로 조명한다. 이어 주란을 프릭-몬스터로 읽어내며, 귀어하고 불구적인 독해를 통해 장애와 귀어에 대한 혐오적 재현 관습을 넘어 주란을 불구 존재와 현재의 시간을 지워 온 교장의 치유 폭력에 반격하며 접한 시간성을 펼쳐내는 비장애트러블의 행위자로 독해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앨리스 케이퍼의 불구 시간성과 엘리자베스 프리먼의 귀어 시간성을 접합해 귀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강제적 이성애 체계와 강제적 비장애인체성 체계가 결합한 규범적 시간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폭력의 역사를 환기하며, 귀어불구 존재의 다른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하기 위해 현재를 다시 사유하게 하는 윤리적 텍스트로 〈경성학교〉를 자리매김한다.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NRF-2025S1A5B5A17015057)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제어: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불구 이론, 퀴어한 슈퍼불구, 매드 사이언티스, 퀴어한 재생산, 퀴어-불구 시간성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불구 이론(crip theory)¹⁾의 관점에서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2015, 이하 <경성학교>)를 독해하며, 퀴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주란의 죽음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가능성이 닫힌 채 해석되어 온 <경성학교>의 결말을 새롭게 독해한다. <경성학교>를 다루는 기존 연구사는 주로 <경성학교>가 지니는 가능성 보다는 결말부에 나타나는 주란의 죽음에 주목한다. 조한기는 주란과 연덕의 연대에 주목하면서도 주란의 저항과 죽음을 폭력의 희생자²⁾의 면모로 해석하며, 김은정 또한 주란의 공격을 생명권력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해석하면서도 그 자기파괴적 속성을 인식한다.³⁾ 김소연은 보다 직접적으로 주란의 초능력 육체가 트라우마적 시간에 들어가 무(無)의 차원이 되었다⁴⁾는 견해를 보인다. 한편, 전예원은 경성학교를 수용소(asylum)라는

-
-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불구라는 용어는 불구자, 불구로 만들다 등을 의미하는 ‘crip’을 번역한 단어로, crip은 장애 정의 운동과 비판적 장애학의 흐름 속에서 본래의 경멸적인 의미가 전유되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제한된 범주를 넘어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외국에서 그 의미가 전유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긍심의 용어로 표현된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불구’ 대신 ‘크립’으로 음차 번역되었으나, 2018년 장애인 여성공간이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발표한 것, 2021년 장애인이 동권연대가 이동권 투쟁의 역사를 “병신의 싸움”으로 칭한 사례 등 ‘불구’, ‘병신’ 등의 언어가 당사자의 언어로 사용되는 사례가 등장했다(엘리스 케이퍼, 이명훈 옮김,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31면, 역자 주 참고). 이후, crip을 불구로 번역하는 사례가 등장했고, 이 글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폭넓게 확장된 범주로서 그 의미를 선명하게 살리기 위해 불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2) 조한기, 「식민지 조선의 SF적 재현 양상 연구: ‘경성학교’와 ‘경성 크리처’의 포스트휴먼 캐릭터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제48호, 영상미디어센터, 2024.
 - 3) 김은정, 「한국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소녀의 재현 양상 연구-〈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마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한층 더 봉쇄된 공간, 곧 “일제의 우생실험이 자행되는 제국남성적 공간”으로 독해하고 “여학생들의 관계 역시 그 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⁵⁾고 주장하며, <경성학교>를 제국의 폭력 바깥으로 탈출할 수 없는 환원적 구조 속에 갇힌 텍스트로 독해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의 독해엔 누락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앞선 세 연구가 주란의 죽음 이후 등장하는 환상의 장면엔 주목하지 않은 채 주란의 죽음을 해석하는 데에 머물렀다면, 전예원은 재현에 대한 해석을 축소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세밀한 장면들이 지닐 수 있는 의미들을 누락시킨다.⁶⁾ 예를 들어 그는 수용소 개념과 함께 ‘여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에 갇힌 동성애라는 기존 해석의 연장선 위에서 경성학교를 제국의 폭력에 갇힌 공간, 유대나 상호의존의 여지가 없는 공간으로 독해한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서사가 전개되면서 드러나는 세밀한 장면들의 의미, 곧 경쟁이나 자기생존의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인, 취침 시간에 여학생들이 비밀스레 가져왔을 친밀한 교류나 주란과 연덕의 귀여한 관계, 그리고 여성들의 귀여한 공간으로서 경성학교가 지니는 의미⁸⁾를 삭제한다. 한편, 본 연구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다소 소극적이거나 결말에 나타난 환상의 장면엔 주목하며 그 안에서 귀여한 배치를 통한 귀여한 시간의 가능성⁹⁾, 그리고 난잡한

-
- 4) 김소연, 「초능력 영화와 포스트바디의 알레고리적 존재론-〈초능력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염력〉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29집, 인문학연구소, 2018.
 - 5) 전예원, 「한국 여성영화의 여학교 표상과 귀어 재현의 문제 -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2015)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통권 6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6, 95면, 각주35.
 - 6) 그의 독해는 텍스트의 내적 분석뿐 아니라, 작품의 제작유통배급 및 관객의 수용을 연결하며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 및 성소수자 담론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맥락에 기반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다만 재현에 대한 해석을 축소해 이를 사회적 담론에 대한 해석이나 여학교와 레즈비언 표상에 대한 기존 논의, 그리고 “이미 지나는 자명한 역사의 폭력”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귀속시키며 작품의 의미를 폐쇄적 회로 속에 포섭시킨다는 아쉬움을 보인다.
 - 7) 전예원, 앞의 논문, 93-98면.
 - 8) 경성학교가 지니는 귀여한 공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이문우, 「소녀 괴물과 귀여한 신체」, 『황단인문학』 제8호, 인문학연구소, 2021.

돌봄공동체의 가능성¹⁰⁾을 탐색하고자 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앞선 연구와는 달리 “너무 가까이 읽기(Too-Close Reading)”의 방식을 통해 <경성학교>의 세부적인 장면과 요소들, 그리고 결말부의 환상 장면에 주목하고 그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때 너무 가까이 읽기의 방식이란 알프레드 히치콕의 <로프Rope>에 대한 D.A. 밀러의 퀴어한 해석의 방식이다.¹¹⁾ 보니 루버그는 밀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게임 <포탈Portal>을 해석하며 “너무 가깝게 다가가기(Getting Too Close)”의 독해를 제시하는데, 이때 루버그가 밀러의 독해에서 주요하게 참조하는 것은 표면 아래에 있는 함축적 의미를 가시화하며 읽어내는 퀴어한 해석의 방식이다.¹²⁾ 루버그는 밀러가 대부분의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거나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소한 요소를 통해 “더 가까이에서 보며 서사적 의미를 추측”¹³⁾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너무 가까이 읽는 방식은 “과잉해석”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관객이라면 꿈꾸지도 못했을 해석적 가능성을 포착”¹⁴⁾하게 하며, 서사에 함의된 퀴어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아가 루버그는 <포탈>을 독해하며 “너무 가까운 플레이어(Too-Close Player)는 비디오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만한’ 의미의 경계를 규정하는 체계모니적 규칙을 거부한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비디오 게임에서 흔히 과소재현(underrepresented) 되어 온 퀴어 주체들과 타자들이 암시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읽어내면서 게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⁵⁾ 본 논문은 루버

9) 위의 논문.

10) 이문우, 「식민지 경성과 레즈비언 로맨스,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아가씨>, <유령>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11) Bonnie Ruberg, *Video Games Have Always Been Queer*,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p.57.

12) Ibid., pp.56-57.

13) Ibid., pp.67-68.

14) Ibid., p.68.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너무 자세히 읽기의 독해를 활용하며, 전체적인 서사 전개의 흐름뿐 아니라 <경성학교>에 나타나는 장면 속의 보다 세부적인 요소들, 순간적인 장면들에 주목하며 그 안에 담긴 서사적 의미를 추측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이를 통해 <경성학교>를 귀어하고 불구적인 텍스트로 해석하며, 그 안에 담긴 함축적 의미와 <경성학교>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주목하는 장면은 결말에 나타나는 환상 장면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성학교>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논문의 작업은 일면 본 연구자의 이전 연구와 결을 같이 하지만, 이 연구는 장애와 귀어함의 교차를 주축에 두고 주란을 귀어한 슈퍼불구로, 교장을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자 귀어한 어머니로 주목함으로써 경성학교를 제국의 이성애규범성과 불화하는 귀어한 공간으로 조명하고, 이와 함께 개조에 대한 교장의 욕망을 치유 폭력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나아가 본 논문은 주란을 강제적 이성에 체계와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가 결합한 규범성에 반격하며 접힌 시간성을 펼쳐내고 파열을 일으키는 비장애트러블의 행위자로 독해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주란의 신체를 통해 드러나는 규범적 시간성과의 불화, 보다 적극적으로 주란이 만들어내는 비장애트러블을 통한 규범적 시간성의 중단, 그리고 결말의 환상 장면으로의 전환 속에서 귀어-불구 시간성을 읽어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망각된, 혹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 속의 귀어-불구를 재현의 장에 불러오며 관객들에게 귀어-불구의 다른 미래를 사유하길 요청하는 윤리적 텍스트로 <경성학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화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 논문은 주란의 불구 신체에서 강화된 신체로의 전환을 슈퍼히어로 장르의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 (superpowerd supercrip)’로의 전환과 귀어한 욕망의 교차라는 측면에서 조명한

15) Ibid., p.83.

다. 이처럼 주란을 슈퍼불구로 조명하며 본 논문은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주란의 쇠약함과 폐질환을 장애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 렌즈로, <정성학교>에 나타난 장애와 퀴어함의 관계를 가장 면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독해의 방법론으로 불구 이론을 채택한다. 캐리 샌달은 본래 동성애자를 지칭하던, 경멸적인 어조를 담은 퀴어라는 단어가 자긍심을 담은 언어로 전유되고 이제 동성애자뿐 아니라 다양한 성적 타자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불구 또한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원래 지칭하던 대상을 벗어나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¹⁶⁾ 이와 함께 본 논문은 불구라는 용어의 유동성과 확장성이 기존 장애학에 내재하고 있었던 정체성 범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등장했으며, 장애학과 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장애 정의(disability justice)’¹⁷⁾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장애 정의 운동은 체제와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법적 권리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장애 범주를 더 주변부로 열어 놓는다.¹⁸⁾ 이에 따라 불구는 “의학적 진단이나 제도적 규정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넘어 “역사적으로 장애인과 공명했던 모든 비규범적 존재, 과거에 없었지만

16) Carrie Sandahl, “QUEERING THE CRIP OR CRIPPING THE QUEER? Intersections of Queer and Crip Identities in Solo Autobiographical Performanc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9:1-2,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p.27.

17) 장애 정의는 백인 우월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본주의, 이성애적 가부장주의와 얽혀있는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에 도전하고, 정의와 해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동을 구축하는 데 집단성과 연대를 강조한다. 더불어 장애 정의는 기존의 장애 권리운동과 장애학이 단일 의제 중심의 접근법으로 유색인 장애인, 이주 장애인, 소외된 종교를 믿는 장애인, 퀴어 장애인, 트랜스젠더 및 젠더 비순응 장애인, 홀리스 장애인, 수감된 장애인, 조상의 땅을 빼앗긴 장애인 등 주변부 장애인의 목소리를 지워왔음을 지적하며, 단일 의제 중심의 접근법을 지양한다. Mel Y. Chen, Alison Kafer, Eunjung Kim & Julie Avril Minich, *Crip Genealogi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3, pp. 5-6.

18) 이명훈, 「불구는 왜 급진적인가 : 불구의 관점으로 교육을 재상상하기」,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넷, 2024, 177면.

새롭게 생겨나는 정치적 지향소속연대의 존재”¹⁹⁾까지도 포함하며, 이와 같은 관점 또한 귀어 이론과 장애학 사이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불구 이론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처럼 불구 이론의 렌즈를 통해 주란을 불구 존재로 바라보며 본 논문은 <경성학교>에 그려진 주란의 신체 강화를 슈퍼히어로 장르 속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에 대한 상상력의 변형으로 조명한다. 슈퍼장애인으로도 번역되곤 하는 슈퍼불구는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선호하는 장애인 인물로서, 장애인에 대한 극도로 낮은 기대치(정의상 장애는 무능함을 의미하므로 장애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평범하고 진부하더라도 과한 찬사를 받을 만하다)와 극도로 높은 기대치(장애인은 비장애인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는, 엄청나게 어려워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의 산물”²⁰⁾로 비판받는다. 수잔 웬델 또한 장애인 영웅(the disabled heroes)의 이미지가 힘과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장애는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만들어내며 대다수 장애인의 타자성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²¹⁾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슈퍼불구는 이와 같은 일상 속의 슈퍼불구의 이미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슈퍼히어로 장르의 맥락 속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새미 샬크가 주장하듯, 슈퍼불구에 대한 논의는 재현 체계 속 서사의 흐름, 장르적 맥락을 비롯해 다양한 층위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²²⁾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슈퍼히어로 영화 속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에 대한 샬크의 정의를 참조하며, 주란을 그와 연결해

19) Mel Y. Chen et al., op.cit., p.3. (위의 글, 177-178면의 번역 인용)

20) 엘리슨 케이퍼, 앞의 책, 235면.

21) 수잔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출판사, 2013, 129-130면.

22) Sami Schalk, “Reevaluating the Supercrip.”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10:1,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6, pp.71-86.

위치시킨다.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는 주로 소설이나 텔레비전, 영화와 같은 재현의 장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이들은 자신의 장애와 연결되거나 이와 대조되는 능력 혹은 힘을 지닌다.²³⁾ 한편, 슈퍼히어로 영화 속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는 비장애국가주의(ablenationalism) 서사에서 “융화(fitting in)”된다는 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²⁴⁾ 데이비드 미첼과 샤론 스나이더는 장애와 융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장애인들이 의료 체계, 종교 모임, 공동체, 직장, 학교, 가족 같은 주요 사회 제도의 경직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encounter)은 점차 비장애인으로, 혹은 적어도 “너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패싱(passing)함으로써 그 안에 융화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고 있다. 포용주의(inclusionism)는 상대적으로 경직된 제도, 환경, 소속의 규범에 과도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한에서만 장애를 용인한다. 특히 장애는 신체적 온전함에 대한 환상, 혹은 완벽은 아닐지라도 협소한 범주의 정상성에 의존하는 국가적 상상계(national imaginary)의 미적 이상에 크게 도전하지 않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²⁵⁾ (강조는 인용자)

언뜻 보기에 비장애국가주의와 슈퍼히어로 서사의 관계는 명확해 보이지 않지만, 할리우드 영화의 슈퍼불구 히어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슈퍼불구 히어로들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장애국가주의와 연관된다. 그들은 힘에 대한 판타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로도 그려진다. 이에 더해 그루는 비

23) Sami Schalk, op.cit., p.81.

24) Jan Grue, “Ablenationalists Assemble: On Disability in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15:1,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21, p.11.

25) 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 *The Biopolitics of Disability*,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5, p.14.

장애국가주의와 슈퍼불구의 개념이 모두 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²⁶⁾ 즉, 비장애국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슈퍼불구의 형상 안에서 완전한 시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국민국가(nation-state)에서 완전한 권리를 지닌,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비장애국가주의와 연결되는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는 이제까지 백인-이성애자-남성의 형상을 띠며 가정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들과 달리 식민지 조선인이자 귀어-불구-여성으로서 주란의 위치에 주목하며, 슈퍼파워를 지닌 귀여한 슈퍼불구 주란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매드 사이언티스트(Mad Scientist)와 귀여한 재생산의 욕망

<경성학교>는 1938년, 총동원체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폐질환을 앓고 있는, 쇠약한 소녀 주란이 경성 근교의 여학생 기숙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황국신민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임을 강조하는 이곳에서 주란은 매일 배급되는 약을 먹고 그의 쇠약한 신체를 치유해 준다는 주사를 맞으며 점차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란은 자신의 귀여한 욕망을 자각하는 동시에 점차 괴물화된 다.

먼저 <경성학교>를 앞선 슈퍼불구 히어로 논의와 이어볼 수 있는 지점은 주란의 불구 신체가 치유라는 명목하에 슈퍼불구 신체로 개조되며, 이와 함께 초인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슈퍼불구로의 전환이 제국의 군인 양성을 위한 인체 개조 실험의 결과라는 점, 그리고 주

26) Jan Grue, op. cit., p.12.

란이 체계를 수호하며 안정성을 복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체계의 경계를 넘어 폭주하며 균열을 일으키는 괴물의 형상과 겹치고 결국 제거되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성학교>는 슈퍼불구 히어로의 서사와 명확히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장르의 문법 속에서 슈퍼히어로는 선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덕적 영웅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한다.²⁷⁾ 하지만 주란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행동하는 슈퍼불구 히어로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귀여한 욕망으로 인해 제거되며, 이는 호러영화 속 귀여운 괴물의 형상에 가깝다. 곧 슈퍼불구 히어로에 대한 상상력이 ‘성장과 극복’, ‘능력의 발전’²⁸⁾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펼쳐낸다면, 귀여한 슈퍼불구 주란은 괴물화되어 제거된다. 이와 같은 결말은 호러영화의 서사 속에서 규범적 체계의 안정성이 붕합되는 결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완전히 붕합되지 않은 채 환상 장면으로 전환되는 최종적 결말, 곧 주란이 가한 공격으로 찢어진, 규범적 시간성의 균열에 주목한다. 이때 주란은 불구 신체가 존재할 현재를 지워내며 자신에게 치유 폭력을 행한 교장에 반격을 가하고, 접힌 시간성을 펼쳐내 현재의 시간을 동결시킨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치유 폭력을 행사한 교장의 욕망을 강제적 비장애인체성 체계를 작동시키는 제국의 규범과 만나면서도 그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독해하며, ‘건강한 신체’의 군사를 양성하려는 제국의 기획을 넘어선 것으로 조명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국의 순리를 초과하며 자신만의 피조물을 탄생시키고자 한 매드사이언티스트이자 귀여한 자식을 재생산한 귀여한 어머니로서 교장을 위치시킨다. 제국의 규범을 초과하는 교장의 창조를 향한 욕망, 귀여한 재생산의 욕망은 오로지 미래의 시간만을 바라보며 소녀들의 불구 신체를 삭제한다.

27)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년, 63면.

28) 조혜영, 「특집 몸 내러티브 신체에서 신체로 미끄러지기 - 디지털 블록버스터 관객성은 어떻게 장애화된 신체를 대가로 구성되는가?」, 『문학동네』 제28권 제2호, (주)문학동네, 2021, 183면.

명시적으로 드러나듯이, <경성학교>의 세계는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compulsory able-bodiedness) 체계가 지배하는 비장애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교장이 제국을 거쳐 표명하는 소임은 체력적으로 강인한 여성을 배출하는 것이고, 황국신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성적이나 바른 마음가짐이 아닌, 바로 '건강한 신체'다. 소녀들 또한 교장의 지도와 함께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를 따른다. 주란뿐 아니라 소녀들에게 매일 지급되는 약은 면역성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다는 명목하에 처방된다. 소녀들은 식전에 먹는 그 약이 머리를 맑게 하고 입맛을 돌게 한다며 이를 기꺼이 먹는다. 연덕 또한 숨도 안 차고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는 효능을 가졌다는 꽃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의 시즈코와 나눠 먹는다. 결국 도쿄 유학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교장이 강조하는 '건강한 신체'의 이상은 도쿄 유학을 향한 이들의 열망과 만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기숙사에 막 입학한 주란을 병을 통해 파악하며 분류하려는 유카의 모습은 이와 같이 규범화된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의 작동을 보여준다. 유카에게 주란은 이름을 갖지 못한 채, '폐병'으로 분류되어 비인간화된다. 이와 같은 비장애중심적 규범의 작동 속에서 주란의 쇠약한 몸, 불구 신체가 자리할 틈은 없다. 강제적 이성에 체계가 정치적 제도로서 이성애를 자연화하며 레즈비언 존재(귀어)를 삭제하듯,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는 비장애 신체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강제하며 불구 존재를 지워낸다. 따라서 주란의 불구 신체는 '건강한 신체'가 되기 위해 교정되고, 사라져야 한다. 이에 교장은 기숙사에 자리 잡지 못한 채, 항상 주눅 들어있었을 주란의 불구 신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주사를 처방하고, 주란은 점차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불구가 되어간다. 그리고 이 비약적인 힘의 증가에 이상함을 느낀 주란은 자신이 맞아온 주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강인함,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 내재된 잠재력을 개발"하며 "초인간적 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인체 개조 실험을 위한 약물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인체 개조의 목표가 적힌 보고서가 최종 실험 “제안서”라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체 개조 실험은 애초 제국의 지령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이 실험은 교장의 제안, 곧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슈퍼휴먼을 창조하고자 하는 교장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 동시에 제안서라는 형식은 그 자체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획의 틀을 초과한다. 따라서 <경성학교> 속 여학생들의 생활은 제국이 수립한 기존의 기획에 슈퍼휴먼을 창조하고자 하는 교장의 욕망이 뒤섞여 제국을 위한 군인으로서 인간 병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정되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여학생들의 생활은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체육 활동만이 아닌, 식민지 조선을 뒤덮는 일본의 국화, 사쿠라를 수놓는 자수 시간 등 여타의 활동으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교장의 제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국의 본 기획에 더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장의 욕망은 이와 같은 제국의 기획에 포섭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안이 기존의 기획을 필연적으로 초과하듯, 교장은 제국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립한 계획조차 이탈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며 제국의 질서와 규율을 초과하며 자신만의 실험을 자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면모를 보인다.

교장: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야

첸지: 다른 학교들도 예상보다 느립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갑시다.

교장: 이미 보급받은 이상, 투약 시기와 방법은 내 권한이야.

첸지: 검증이 아직 안 끝난 약입니다. 별도 지시를 기다리세요.

교장: 이 실험이 곧 검증 그 자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 과정이야. 진행 중이라고. 분석은 결과를 놓고 하는 거야.²⁹⁾

(강조는 인용자)

www.kci.go.kr

29) 대사는 VOD 구매판의 자막을 인용.

이처럼 교장은 제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험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며, 따라야 할 정식적 절차가 아닌 미래의 결과에 대한 광기 어린 욕망을 내비친다. 비록 현재는 경성학교의 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분명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위치가 그를 점유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도래할 위험이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음에도 이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국이 부여한 규율과 질서, 혹은 세계의 합리적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초인간적 능력을 가진 슈퍼휴먼이라는 결과물, 과학자로서 자신이 새롭게 창조해 낼 미래 뿐이다. 따라서 그를 교장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의 실험을 좌절시키는 건지가 그에게 그토록 이 실험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가토 사나에’로서,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그의 발화는 그저 피식민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제국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의미로만 독해되지 않는다. 이어 그가 “이 지긋지긋한 조선을 제 실력으로, 제 발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는 물론 식민지 조선을 제힘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인정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은 조선인이라는 위치에서는 제국의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실험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식민지 땅의 조선인이란 어디까지나 실험의 대상에 불과하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의 자리, 그와 같은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인 바깥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망으로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경계 밖의 과학자로서 자신의 실험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욕망은 결국 규율을 이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제국의 폭력적 구조 속에서 남성 군인의 통제라는 형태로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패는 개조 혹은 그를 넘어선 창조에 대한 교장의 욕망, 곧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동시에 귀여한 어머니로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귀여한 재생산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이성애규범적 폭력, 강제적 이성애 체계라는 맥락 안에서도 독해할 수 있다.

교장의 실험은 분명 무(無)에서 출발하는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개조하는 것이지만, 그가 드러내는 욕망은 제국의 질서라는 인간의 법뿐 아니라 세계에 부여된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자 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형상인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겹친다. 존 헤게스테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Frankenstein*에 대한 (영미권)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흐름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궤적으로 정리한다. 1) 프랑켄슈타인을 (여성) 어머니로, 그리고 이 소설을 메리 셸리의 끔찍한 모성 경험에 대한 기록으로 조명하는 연구들 2) 프랑켄슈타인을 남성 창조자로 조명하며, 이 소설을 남성이 여성의 생식 능력을 찬탈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경고적 이야기**로 보는 관점 3) 이 소설을 임신 서사로 읽는 것이 생물학적 결정론과 젠더 본질주의에 의존한다는 후기 페미니즘의 비판적 관점³⁰⁾. 이와 같이 *Frankenstein*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의 흐름이 있었다면, *Frankenstein*에 대한 해석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또 다른 흐름은, 퀴어한/트랜스젠더의 분노(queer fury/transgender rage)와 퀴어 가족구성에 대해 다룬 트랜스 연구(Trans Studies)의 흐름이다. 수잔 스트라이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과 자신이 괴물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신체적 경험,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경험에 대한 분노의 감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트랜스젠더의 분노가 강제로 할당된 주체의 위치로부터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주체의 위치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분노의 작용을 통해 낙인 또한(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변혁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¹⁾ 이와 같이 *Frankenstein*에 대한 비평에서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남성

30) Jon Heggstad, "On *Frankenstein* and How (Not) to Be a Queer Parent", *Victoriographies*, 13:2,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3, p.136.

3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Susan Stryker,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4, pp.237-254.

적 전유를 향한 경고로 독해하는, 재생산 담론에 대한 초기 페미니즘에서의 논의, 그리고 퀴어한/트랜스젠더의 분노와 퀴어 가족구성에 대해 다룬 트랜스 연구라는 두 가지 방향의 주된 흐름이 존재했다면, 본 논문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을 부모-자식 관계로 들여보며 퀴어한 해석을 제시한 존 헤게스테드의 논의에 주목한다. 그는 프랑켄슈타인을 무책임한(가부장적) 남성으로 바라보며 남성적 이미지의 재생산(re-producing)을 비판하는 앞선 페미니즘의 해석에 퀴어한 시각을 더해 프랑켄슈타인을 퀴어한 방식으로 퀴어한 자손을 만들어낸 퀴어 조상(queer progenitor)으로 독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프랑켄슈타인을 단순히 무책임한 인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한층 더 의미 있게 독해할 방법을 제공한다. 헤게스테드는 *Frankenstein*을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끔찍한 퀴어 조상의 모습을 통해 무책임한 퀴어 조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경고하며, 퀴어 친족 관계와 가족구성에 관한 미래의 담론들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텍스트로 해석한다.³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프랑켄슈타인을 퀴어 조상, 퀴어한 아버지로 바라보며 그의 창조를 (여성 없는) 퀴어한 재생산으로 독해할 수 있다면, 본 논문은 주란에 대한 교장의 개조의 욕망을 (남성 없는) 퀴어한 재생산에 대한 욕망으로 독해한다. 곧 경성학교를 퀴어한 공간으로 조명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영입되기보다는 황국의 신민 되기를 꿈꾸는 교장 또한 퀴어한 인물로 독해한 앞선 연구³³⁾에 한 층위를 더해 본 논문은 교장을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자 퀴어한 어머니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 퀴어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 광기 어린 치유 폭력(curative violence)³⁴⁾을 저지르며 부모 되기에 실패하고, <경성학교>는 그와 같은 폭력적인 치유 욕망이 그에게

32) Jon Heggestad, op.cit., pp.146-148.

33) 이문우, 앞의 논문, 2021, 223면.

34)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발과 정치』, 후마니타스, 2022, 38면. 교장의 치유폭력과 관련해서는 4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불러올 파멸을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이 주란뿐 아니라 교장의 욕망 또한 퀴어한 시선에서 조명할 때, 교장의 실험을 짓밟는 군인들, 주란과 연덕이 탈출을 기하고자 했을 때 마주한 군인들의 훈련소, 곧 그들의 퀴어한 욕망을 허용하지 않는 규범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닫힌 체계의 구조³⁵⁾는 그들을 둘러싼 강제적 이성애 체계의 작동을 한층 더 질게 드러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성학교>의 주란이 보여주는 이탈과 초과, 그리고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는 새로운 층위에서 의미화될 필요가 있다. <경성학교>는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와 강제적 이성애 체계의 결합을 허물어뜨리는 퀴어한 슈퍼불구의 힘을 보여주며, 관습적인 재현 체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퀴어·불구의 다른 미래에 대한 사유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3. 퀴어한 슈퍼불구와 프릭-몬스터의 탄생

이와 같은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주란의 슈퍼불구 신체가 제국의 규범을 이탈하고 그를 파열시키며 그 질서를 흔적만 남긴 채 폐허로 만든다는 지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과 파열의 가능성, 슈퍼불구 신체로의 전환을 교장이 주입한 퀴어한 욕망과 맞물린 주란의 퀴어한 욕망의 발현과 이어본다. 서사의 전개 속에서 주란의 퀴어한 욕망의 발현과 슈퍼불구 신체로의 전환은 맞물려 있다. 소녀들, 그리고 주란을 보다 강한 생명체로 개조하기 위해, 혹은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

35) 이는 경성학교라는 공간 그 자체가 제국남성적 공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경성학교를 퀴어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조명하며, 다만 그를 둘러싼 군인 훈련소라는 남성적 공간, 경성학교를 지배하는 제국의 규범이 그들의 이탈을 쉽사리 가능하지 않게 함을 이야기한다.

교장이 처방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한편, 주란은 연덕에게 귀여한 욕망을 느끼게 된다. “이상한(queer) 아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 해준다는 연덕의 말에 그를 향한 주란의 귀여한 욕망은 점차 강화되는데, 이와 같은 욕망의 발현과 손상의 회복, 그리고 슈퍼불구 신체로의 전환은 이어진다. 연덕을 향한 귀여한 욕망이 기쁨으로 이어질 때, 주사를 통해 약물을 주입받는 시간은 상쾌해지고, 이는 회복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연덕과 함께 한 호숫가로의 작은 탈주 후에 이어진 주사 시간, 그리고 달리기 장면에서 도약의 달리기조차 힘들어했던 주란은 유가와 연덕에 뒤이은 기록을 세우며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이 변화는 특기할 만하지만, 모두에게 괴이(queer)해보일 정도의 사건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귀여한 욕망이 더욱 짙어져 주란의 신체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은 슈퍼불구의 능력이 되는 동시에 괴물화되어 주란에게 돌아온다. 주란이 처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연덕을 향해 도쿄에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후다. 자신이 과거의 시즈코 대신이라는 속상함, 자신과 도쿄에 가고 싶다고 말해주지 않는 연덕을 향한 섭섭함, 귀여하게 영겨가는 마음으로 멀리뛰기를 하는 주란은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주란의 귀여한 욕망이 점차 커져 밖으로 넘쳐흐를수록 슈퍼불구로의 전환과 괴물화는 맞물리고 가속화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주란에게 우수 학생으로 선발되고 싶다는 것은 곧 연덕과 함께 도쿄에 가고 싶다는 귀여한 욕망이므로, 그 욕망이 교장에게 포착되며 주란의 변화는 가속화된다.

주란이 교장과 면담하며 우수 학생의 정확한 선발 요건이 궁금하다고 물어볼 때, 교장은 자신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다는 주란의 말보다는 그에게서 새어 나오는 귀여한 욕망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주란을 특기할 만한 실험체 중 하나로 주목하며 그의 일상을 기록한 비디오의 존재를 고려할 때, 교장은 이미 회복을 넘어서 그가 초인적 생명체로 재탄생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주란의

발화는 그에게 그다지 새롭지 않다. 하지만 주란이 연덕을 향한 그의 쿼어한 욕망을 내비칠 때, 이는 주란이 재탄생할 가능성에 대한 교장의 쿼어한 재생산에 대한 욕망과 기대를 한층 더 부풀린다. 교장이 주란에게 주입하는 약물은 주란의 쇠약한 신체를 초인간적 신체로 전환하기 위한 보철물로서 교장의 쿼어한 재생산에 대한 욕망을 담아 주란의 신체로 옮긴다. 따라서 주란에게 흘러나오는 쿼어한 욕망에서 교장은 자신을 닮은 쿼어한 딸의 가능성을, 자신이 주입한 쿼어한 욕망과 주란의 쿼어한 욕망이 만나 증식하고 강화되면서 보다 높아질 재탄생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는 주란을 우수 학생 1순위에 올리며 주란의 신체 개조를 한층 가속화한다.

그런데 이때 주란이 얻게 된 초인적인 힘은 장애와 온전히 분리되지 않으며, 그의 슈퍼불구 신체는 앞서 살펴본 슈퍼불구 히어로의 강화된 신체와는 다른 형상을 보인다. 슈퍼불구 히어로의 보철이 장애를 가리고 그 안에서 장애가 서사적 보철물의 기능을 했다면, 주란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동시에 이명과 통증을 느낀다. 이때 이를 해석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장면은 바로 약물이 주입되는 장면이다. 약물이 주입될 때, 주란의 쇠약한 신체의 피, 불구의 피는 약물과 뒤섞여 다시 주란의 몸으로 들어간다. 곧 주입되는 약물을 주란의 신체를 강화하는 보철로 바라본다면, 주란의 장애와 보철은 분리되지 않고 끈적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주란의 몸속에서 장애와 보철, 그리고 보철 안에 담긴 쿼어한 욕망은 분리되지 않고 뒤얹힌다. 그렇기에 장애와 쿼어함이 뒤엉켜 재탄생한 쿼어한 슈퍼불구 주란은 장애와 쿼어함을 허락하지 않는 제국의 규범적 체계에서 미끄러지고, 체계에 생산적으로 복무하며 비장애국가주의 서사에 귀속된 슈퍼불구 히어로처럼 매끄럽게 강화된 모습만을 보일 수 없다. 그의 신체는 어떤 분열이나 고통도 겪지 않았던 ‘백인·이성애자·남성 슈퍼불구 히어로’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이명과 통증을 느끼며 피를 흘리고 자신을 둘러싼 강제적 규범과 체계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결국 주란의

몸속에서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장애와 뒤섞여 불어나는 귀어함은 생산성을 강조하는 비장애국가주의와 이성애규범성에 기반한 제국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처럼 경성학교를 둘러싼 체계의 시선 속에서 주란은 괴물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란의 귀어한 슈퍼불구 신체는 슈퍼불구 히어로가 아닌, 체계에 어긋나는 존재이자 제국의 규율을 이탈하고 파괴하는 슈퍼불구 괴물로 형상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슈퍼불구 괴물의 형상을 불구의 역사와 겹쳐보며, 이 영화에서 재현된 슈퍼불구 괴물의 ‘괴물’을 이중적인 의미로 읽어보고자 한다. 곧 본 논문에서는 괴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호러 영화의 몬스터(monster)³⁶⁾를 불구 역사의 프릭(freak)과 겹쳐본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에서 성행한 프릭쇼는 “지금 우리가 ‘인종’, ‘민족’, ‘장애’라고 부르는 몸의 다름을 (...) 문화적 타자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을 보여주는 의식 속에서 연출해 제시”³⁷⁾한 것으로 설명된다. 기형인간쇼는 “왜소인, 거인, 턱수염 난 여성, 팔이나 다리가 없는 경이로운 사람, 그리고 뚱뚱한 여자와 같은” 사람들의 보통이 아닌 몸을 오로지 텍스트로만 들어내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간을 프릭으로 생산해냈다.³⁸⁾ 물론 주란의 슈퍼불구 신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이성, 보통이 아닌 몸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란의 괴물성을 프릭과 직접적으로 이어보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프릭은 무엇보다 타자라는 인식의 산물로서 구성되었다. 로즈메리 갈런드-톰슨은 “다르거나 지배 질서에 위협적이라고 간주된 모든 신체적 특징들은 기형인간쇼 무대 위에서 신체적인 다름을 보여

36) 배리 랭포드는 호러영화를 묶는 개념이 ‘괴물 같은’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하며, 몬스터(monster)라는 어원을 중심으로 호러 장르를 분석한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어긋나는 비규범적인 존재들이 호러 영화의 괴물로 나타날 때, 귀어는 호러 장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호러 장르와 관련한 랭포드의 설명은 배리 랭포드, 방혜진 옮김, 『영화 장르: 할리우드와 그 너머』, 한나래출판사, 2010을 참고할 것.

37) 로즈메리 갈런드-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21, 117면.

38) 위의 책, 115-117면.

주는 일종의 잡다한 사람들로 구성된 합창"이었음을 짚으며, [인종적 타자인] 유색인을 전시하는 “깜둥이 쇼(nig show)” 또한 문화적이고 신체적인 타자성을 거래하는 기형인간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한다.³⁹⁾ 이와 같은 갈런드-톰슨의 말을 통해 본 논문은 황국신민과 식민지 조선인을 분할 통치하는 제국의 시선 속에서 오로지 실험의 대상으로 포착되고, 결국은 성공적인 실험체가 됨으로써 한층 더 ‘비정상적인’ 민족작신체적 타자로 그 의미를 지니게 되었을 주란의 신체를 떠올린다. 그렇게 주란의 슈퍼볼구 신체를 오로지 실험체라는 의미만을 지니는 텍스트로서, 제국의 카메라에 기록되고 상영되는 식민지인의 신체로서, 그리고 성공적인 첫 번째 실험체로 또다시 실험실의 침대에 놓여 실험의 대상이 되고 사후에는 유리관 속에 동결되어 박제되고 전시될 민족작신체적 타자로서, 프리크와 이어본다. 이렇게 슈퍼볼구 괴물로서 주란을 프리크의 역사와 이어볼 때, 주란은 그의 퀴어한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 새롭게 획득한 초인적 힘이 여전히 장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슈퍼볼구 신체가 실험체의 신체이자 민족적 타자로 존재한다는 지점에서도 프리크으로서 괴물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본 논문은 주란의 괴물화된 슈퍼볼구 신체를 퀴어함과 장애의 교차점에서 프리크-몬스터로 겹쳐읽는다.

결국 주란의 퀴어한 슈퍼볼구 신체는 장애와 퀴어함이 재현 체계에서 지녀온 의미의 관습을 따라 괴물화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성학교>의 퀴어한 슈퍼볼구 재현은 장애와 퀴어함을 괴물화해온 재현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와 강제적 이성애 체계의 견고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해은은 퀴어와 죽음의 상징적으로 결합하면서 퀴어가 죽음을 욕망하는 존재로 재현되고 “이런 재현 체계에서 퀴어들에게 주어진 배역은 범죄자·살인자·죽음으로 퇴장하는 역할밖에 없는 셈”⁴⁰⁾이라고 비판하는데, 이와 유사한 비판이 장

39) 위의 책, 121면.

40) 전해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1, 411면.

에 재현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와 퀴어의 재현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불구적이고 퀴어한 독해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캐리 샌달은 불구화(crippling)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독해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때 불구화는 “주류문화의 재현이나 관행을 뒤집어 비장애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과 [장애에 대한] 배제 효과를 드러내는 행위로 정의된다.”⁴¹⁾ 짓궂은 유머로 주류문화의 재현이나 관행을 뒤집어 보는 불구화의 독해는 이후 샌달이 공동 작가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Code of Freaks*의 전략으로도 나타난다. 샌달은 주류 미디어에 재현된 장애 형상을 불구화하는 이 영화의 전략을 기존의 영화들이 장애인에의 정신과 일상에 끼친 해악을 목격하고 이를 무자비하게 조롱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비인간화하고 고정관념화하며, 비하하거나 악마화하는 재현에 맞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시청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⁴²⁾ 다음 절에서는 프릭-몬스터로서 주란이 만들어내는 <경성학교>의 결말을 이와 같이 퀴어하고 불구적인 시선에서 다르게 읽어보고자 한다. <경성학교>가 그 끝에 남겨둔 잔여의 환상은 장애와 퀴어에 대한 혐오스러운 재현의 관습에 대한 비판으로 끝맺어지지 않는 해석의 가능성을 남긴다.

4. 퀴어-불구 시간성과 윤리적 사유에의 요청

41) Carrie Sandahl, op.cit., p.37. 이와 함께 같은 페이지에 기재된 다음의 문장도 참고할 수 있다: “퀴어링은 주류문화의 재현을 비틀어 잠재된 퀴어 하위텍스트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현을 전유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재현의 이성애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관행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일부 장애인인은 “크리핑(crippling)”을 실천한다. (...) 퀴어링과 크리핑 모두 정상적인 것과 결합이 있는 것 사이의 자의적 구분과 인간을 동질화하려는 시도의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드러내며, 캠프(camp)를 비롯한 짓궂은 유머로 고통스러운 것을 무장 해제시킨다.”

42) Carrie Sandhal, “It’s All the Same Movie: Making Code of the Freaks”, *JCMS: Journal of Cinema and Media Studies*, 58:4, Ann Arbor, MI: Michigan Publishing, 2019, p.149.

<경성학교>는 일면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 슈퍼불구 주란이 프릭.몬스터의 형상으로 변모하며 제국의 공간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연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일탈과 동요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면서 괴물 죽이기를 시행하는 호러 영화의 문법 속에서 이와 같은 결말은 프릭.몬스터를 제거해 이전 상태를 복구하고 재억압하며 봉쇄하는 것⁴³⁾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성학교>의 이 프릭.몬스터는 말끔히 제거되지 않은 채 그를 둘러싼 이성애·비장애 규범적 시간성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발생한 퀴어·불구 시간성 속에서 미지의 시간으로 이동한 주란과 연덕이 보여주는 환상 장면을 통해 퀴어·불구의 미래에 대한 윤리적 사유를 요청한다.

본 논문에서 이처럼 규범을 찢어내 흔적을 남기는 순간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치유 폭력을 행했던 교장의 죽음이 그려지는 순간이다. 교장은 주란에게 ‘너희들이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 실험을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이와 같은 교장의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접힌 시간성(folded temporalities)이다. 김은정은 “치유가 시간을 접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재활’과 ‘회복’을 통해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과거로 이동할 것, 그리고 장애와 질병이 없는 미래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⁴⁴⁾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질병과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만을 존재하게 하고 현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의 틀로 접힌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애의 존재를 문제로 규정하고 치유 과정에서 그 대상을 파괴하는”, “타자를 소위 나아지게 해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타자가 지닌 차이를 지우려는 힘”으로서 치유 폭력⁴⁵⁾이 존재한다. 질병과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를 횡단하는 김은정의 접힌

43) 베리 랭포드, 앞의 책, 267면.

44) 김은정, 앞의 책, 33면.

45) 위의 책, 38면.

시간성 개념이, 약하고 힘이 없는 과거에서 강화된 신체로, ‘아름답게 성장한’ 미래로 소녀들을 곧바로 이동시키려는 교장의 치유 폭력과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본 논문은 교장이 만들어낸 시간을 접힌 시간성의 개념과 이어본다.⁴⁶⁾ 그리고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매드 사이언티스트이자 귀어 어머니로서 교장이 행한 치유 폭력과 접힌 시간성 속에서 또다른 귀어 부모 되기의 실패를 읽어낸다. *Frankenstein*을 책임을 회피한 귀여한 아버지에 대한 경고로 읽어 낸다면, <경성학교>는 치유 폭력을 저지르며 자식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창조하는 귀여한 어머니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이 죽음을 향해가며 과연 교훈을 얻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통해 *Frankenstein*이 끔찍한 조상들로 가득찬 귀여한 미래를 열어줬다고 한다면⁴⁷⁾, <경성학교>는 그 시선을 주란으로 옮겨 단순한 경고에 멈추지 않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란은 자신을 비롯해 소녀들의 불구적 시간을 삭제한 교장을 벽에 고정시키고 동결시키며 폭력적인 치유의 시간으로부터,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하던 접힌 시간성에서 현재를 펼쳐낸다. 그리고 그렇게 주란이 펼쳐낸 현재의 시간은 영화적 시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정지되면서 암전을 맞이한다. 하지만 <경성학교>는 이 어둠 속에서 종결되지 않는다. 중단되었던 시간은 알 수 없는 환상과 같은 미지의 시간을 향해, 마치 과거와 같지만 그와 동일하지 않은, 변주된 시공간에 도착적으로 흘러간다.

이처럼 주란이 교장이 만들어낸 접힌 시간성, 불구 존재를 삭제해 온 비장애중심적인 규범적 시간성을 펼쳐낼 때, 본 논문은 주란을 비장애 트러블(ability trouble)을 발생시키는 행위자(agent)로 조명한다. 로버트 맥루어

46) 주란을 향해 ‘네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모르겠냐’고 말하는 교장의 발언은 주란의 현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란을 성공적인 신약의 첫 번째 실험체로 또다시 제국의 실험실로 보내려는 교장의 시도는 오로지 주란의 강화된 신체만을,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주란의 미래만을 보고 있다고 독해할 수 있다.

47) Jon Heggstad, op.cit., p.148.

는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의 한 구절을 장애에 관한 논의로 다시 쓰면서 비장애신체성이 일관되게 체현될 수 없는 정체성임을, 곧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 또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범임을 말한다.

[비장애신체성은] 애초에 체현이 불가능한 규범적 위치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위치들과 일관성을 깨지 않고 완전하게 이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은, [비장애신체성] 그 자체가 강제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필연적인 코미디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말로 나는 이를 강제적인 체계이자 내재적 희극, 즉 그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패러디로 보는 동시에 어떤 대안적인 [비장애신체의 정체성의] 관점으로 보려는 통찰을 [장애 쪽에] 제시하고 싶다.⁴⁸⁾

하지만 이성애가 자연화되었다는 사실의 폭로가 반드시 그 전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듯이, 이와 같은 규범의 필연적인 실패가 곧바로 전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맥루어는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격차를 고려하며, 저항과 전투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단어로 ‘severe’에 주목하며, “결연한 태도의 중증 장애인(severely disabled)”⁴⁹⁾을 저항적 가능성을 지닌 주체로 의미화한다. 이들은 정상성으로부터 가장 주변화되고 배제된 존재로 이해하는 비장애중심적 이해를 뒤엎는 동시에 미약한 관용(merc

48) Robert McRuer,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p.10.

49) 이때 severely는 관용을 거부하는 결연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곧 severely disabled는 가장 주변화되고 배제된 존재로 중증 장애인을 규정해 온, 의학적 언어의 비장애중심적 이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낙인의 의미를 전복시켜 저항적 태도의 언어로 전유하며 이중적인 의미를 띤다. 이는 퀴어 문화, 특히 흑안라틴계 퀴어트랜스 커뮤니티가 일반적 찬사로 사용되던 fabulous를 뉴욕의 볼룸씬, 드랙 하우스 문화에서 스스로를 화려하게 연출하고 선언하는 자기표현의 언어로 전유한 것, 곧 자원이 결여되고 사회적 주류에서 배제된 존재들이 캠프적 유머를 통해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며 과장되고 화려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내세우고 스스로를 표현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toleration)을 거부하고 강제적 비장애신체성 체계라는 규범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에 가장 유리한 존재다.⁵⁰⁾ 이처럼 불구는 손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결연한 태도의 중증 장애인’은 비장애신체성 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실패를 기다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와 같은 규범의 약점을 집합적으로 작동시킴과 실패를 적극적으로 유발한다는 지점에서 비장애트러블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성학교>에서 접힌 시간성을 펼쳐내며 트러블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몸에 맞춰져 정상화되고 규범화되어 온 비장애 규범적 시간성에 저항하며 그 폭력을 고발하는 주란을 본 논문은 비장애트러블의 행위자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이때 주란이 가하는 이 반격은 규범적 시간성의 폭력을 고발할 뿐 아니라, 경성학교를 둘러싼 체계 내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불구의 시간⁵¹⁾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때 불구의 시간에 내재된 유연성은 “속도와 일정에 대한 기대의 규범화와 정상화에 대한 도전”이며, “시계를 장애 있는 몸과 마음에” 맞추는 조정의 힘이다.⁵²⁾ 동시에 케이퍼는 질병과 장애가 만들어내는 시간과 속도의 변화가 일직선(straight)의 시간을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불구 시간성과 퀴어 시간성의 교차점을 짚어내며,⁵³⁾ 이를 통해 불구의 미래 없음이 아닌, 불구의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자 하는 작업으로서 불구 시간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점에서 몸을 통해 규범적 시간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읽어내고, 다른 미래를 향한 윤리적 지향을 드러내는 엘리자베스 프리먼의 퀴어 시간성⁵⁴⁾ 논의를 불구 시간성과 이

50) Robert McRuer, op.cit., pp.30-31.

51) 앨리스 케이퍼는 불구의 시간을 (불구의 몸과 마음에 맞춰) “시간을 재지향하는 것(reorientation)”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심에 유연성을 놓는다. 앨리스 케이퍼, 앞의 책, 85면.

52) 위의 책, 85면.

53) 위의 책, 85-133면.

54) 케이퍼는 *GLQ*의 퀴어 시간성 특집호 서문에서 엘리자베스 프리먼이 질병과 장애가 시간을 다르게 혹은 퀴어하게 사유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신체적 변화 너머”의 퀴어 시간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어보며 <경성학교>를 통해 퀴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리먼은 자크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을 경유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아를 분열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성을 우회시키는 타자, 곧 유령론적(hauntological) 존재에 결속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이때 이 타자적 존재들은 죽은 자이자 망각된 과거, 혹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는 실현될 수 없었던 미지의 잠재성으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봉쇄되었던 다른 삶과 관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거의 타자를 향한 우회, 머뭇거림 속에서 프리먼은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방식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다른 미래’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이야기한다.⁵⁵⁾ 이처럼 현재에 과거가 접촉하며 마찰할 때 발생하는 퀴어 시간성은 역사를 망각한 채 매끄럽게 통합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비전, 목적론적인 사건들의 연쇄나 직선적인(straight) 시간을 거부하고,⁵⁶⁾ 프리먼은 이를 바탕으로 규범적 시간성(chrononormativity)에 제동을 걸고 균열을 드러내는 텍스트를 해석하며, 역사의 다른 가능성 위에서 살아갈 미래를 사유하는 윤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 프리먼이 제시하는 규범적 시간성은 케이퍼가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비장애규범적 시간성에 대한 인식, 곧 시간과 속도에 대한 기대가 특정한 “몸”과 “마음”에 맞춰 정상화되어 왔다는 인식과 교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리먼과 케이퍼 모두에게 규범적 시간성이 특정한 “몸”을 통해 구축된다는 지점, 곧 퀴어 시간성과 불구 시간성 모두

퀴어 시간성에 대한 프리먼의 논지를 본격화하여 보여주는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이하 *Time Binds*)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Time Binds*에서 프리먼은 “몸”을 매개로 규범적 시간성의 균열을 읽어내고, 퀴어 이론의 해체론적 경향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퀴어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면서 ‘역사 속의 다른 미래’를 사유하고자 하는 윤리적 지향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점에서 프리먼이 제시하는 퀴어 시간성이 *GLQ* 서문에 대한 케이퍼의 비판을 넘어서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를 케이퍼의 불구 시간성의 지향성과 겹쳐본다.

55) Elizabeth Freeman,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pp.9-10.

56) Ibid., Preface, xxii.

신체를 매개로 한다는 지점에서 그 교차점에 주목하며 둘을 접촉시켜 퀴어-불구 시간성의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케이퍼의 불구 시간성이 불구의 신체를 통해 규범적 시간성을 재지향하며 유연하게 재구축하듯, 프리먼이 제시하는 퀴어 시간성 또한 몸을 통해 감지되고 가시화된다. 프리먼의 분석 속에서 과거는 인지적인 회고의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육체적이고 감각적 층위⁵⁷⁾로 드러나 현재에 묶이게 되고, 망각되어 온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묶임(Time Binds)은 선형적인 연대기적 역사의 연결이 아니기에 강력한 마찰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퀴어 시간성은 비동시성, 도착, 생략, 플래시백, 반복 등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 속에서 가시화⁵⁸⁾되며, 프리먼은 이와 같은 중단의 형태에 주목해 퀴어 시간성을 읽어낸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프리먼은 이처럼 규범적 시간성을 깨뜨리며 발생하는 퀴어 시간성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속한 타자들과 불확정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갈 다른 가능성들⁵⁹⁾, 곧 역사적 타자들의 미래 없음이 아닌 다른 미래를 사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망각된 과거, 혹은 그 가능성이 차단된 과거를 현재와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며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드러내는 작품들에 주목한다.⁶⁰⁾ 이와 같은 그의 작업은 케이퍼가 경계한, 지나간 향수를 정상화하면서 과거를 재상상하는 작업, 마치 장애가 없었을 몸/마음에 대한, 존재하지 않았을 일종의 강제적 향수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억⁶¹⁾과는 다른 것이다. 케이퍼가 경계하는 강제적 향수가 장애라는 차이를 지워낼 매끄러운 과거에 대한 것

57) 프리먼은 몸 이론을 바탕으로 신체에 물질화되고(mattered) 체현되는(embodied) 시간의 감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며, 기존의 퀴어 이론에서 논의되어 온 부정성과 고통을 넘어 성적이고 에로틱한 쾌락을 포착할 수 있는 에로토헬사학(erotohistoriography)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이와 관련해서는 *Time Binds*의 3장, "Time Binds, or, Erotohistoriography"를 참고할 것. Ibid., pp.95-135.

58) Ibid., Preface, xxii.

59) Ibid., Preface, xxii.

60) Ibid., Preface, xvi.

61) 엘리슨 케이퍼, 앞의 책, 123-124면.

이라면, 프리먼의 작업은 오히려 그와 같은 차이와 과거에 존재했던 실패를 지우지 않고, 현재의 시간에 봉합되어 망각된, 잠재성의 조각을 찾아내 되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먼은 역사적 기억 속에서 가능할 수 없었던 과거, 혹은 망각의 역사 속으로 밀려난 실패의 과거에 담긴 역사의 표류물이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재동원해 '과거와 미래를 상호 침투시킬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를 통해 체제의 실패 또한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⁶²⁾ 곧 그는 모든 것이 봉합되고 완결된 듯 보이는 역사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과거, 근대성과 자본주의 체제가 구축된 역사 속에서 지워진 과거의 작은 사건들(episodes)을 현재의 시간에 불러들여 다시 바라보며 미지의 다른 미래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본 논문은 규범적 시간성에서 미끄러진 몸을 통해 다른 미래에 대한 윤리적 사유를 요청하는 시간성으로 켜어-불구 시간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프리먼을 경유해 본 논문은 <경성학교>의 규범적 시간성을 강제적 이성애 체계와 강제적 비장애인체성 체계가 결합해 몸에 새겨지며 작동하는 것으로 위치시키며, 주란이 점차 괴물화되어 가며 느끼는 이명과 통증을 그와 같은 규범적 시간성에서 미끄러지며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이명과 통증을 그의 몸에서 새어나오는 규범적인, 강제적 비장애인체성 체계와 강제적 이성애 체계의 필연적 실패로 바라보며, 이를 치유와 교정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켜어함과 장애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으로 조명한다. 곧 주란이 느끼는 이명과 통증은 그의 켜어한 욕망과 만나 되살아난 불구적 과거가 현재의 몸으로 되돌아오며, 규범적 시간성이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주란의 신체가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적었듯, 이와 같은 체계 자체의 균열과 결함이 즉각 저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란이 교장에게 반격을 가하며 접힌 시간성을 찢어낼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비장애트러블

62) Elizabeth Freeman, op.cit., Preface, xvi.

의 행위자가 되며, 이와 같이 주란이 규범의 실패를 위해 적극적으로 체계의 약점을 동원할 때 귀어-불구 시간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처럼 귀어-불구의 현존을 삭제하며 치유의 미래를 향해가던 규범적 시간성을 찢어내고 시간을 현재에 동결시키면서 주란이 발생시킨 귀어-불구 시간성은 암전과 중단,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없는 환상으로의 도착이라는 형태로 영화 속에서 가시화된다.

앞서 말했듯, 주란은 소녀들을 지배하던 제국의 이성애비장에 규범적 체계를 폐허로 만들고 교장의 규범적 시간성을 찢어내며 귀어-불구를 존재할 수 없게 만들던 접힌 시간을 펼쳐내지만, 이와 같은 주란의 반격이 곧바로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영화는 주란의 공격 이후, 떠오르는 다음 날 아침의 경성학교를 비춘다. 그리고 깨어난 한 명의 소녀만이 쓰러진 다른 소녀들과, 소녀들의 무궁화 자수에 뒤덮여 매달린 채 죽어있는 사감을 보게 된다. <경성학교>는 이처럼 미지의 잠재성을 새롭게 그리려 시도하면서도 역사 속 실패의 시간을 그저 매끄럽게 다시 쓰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성학교>는 환상의 장면에 앞서 주란 또한 ‘우리 이제 집에 가자며 연덕과 함께 죽음으로 향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패한 과거의 시간을 잊지 않으면서도 <경성학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시간을 중단시키고 죽음을 환상 속 장면으로 전환하면서 주란과 연덕을 미지의 시간으로 도착시키며 그들의 집을 새롭게 생성한다. 이때 그들이 도착한 공간은 귀어한 역사를 가진 공간⁶³⁾이자 주란과 연덕이 일본어 이름이 아닌, 자신의 “진짜” 이름과 병에 대한 비밀을 나누며 그에 대한 안전을 약속한, 커밍아웃의 공간이며 벽장 밖 첫 만남의 공간으로서 귀어하고 불구적인 공간이고, ‘고장나고 제대로 된 것이라곤 없는, 손상된 사물들이 모여 있던 과거의 공간과 같은 장소이지만, 동시에 그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미지의 시간 속 변주된 공간

63) 귀어한 관계가 이어져왔을 공간으로서 지하실을 조명하는 연구로는 이문우, 앞의 논문, 2021, 233면을 참고할 것.

이다. 프리먼이 주목한 작가들이 역사의 표류물뿐만 아니라 자본이 버린 쓰레기들과 우리가 망각하길 바라는 에피소드들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⁶⁴⁾처럼, <경성학교>는 이 쿼어·불구의 기억과 역사가 모인 공간으로,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과거가 아닌,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시간으로 주란과 연덕을 보내며 과거를 미래로 침투시킨다. 그 속에서 지하실은 이전과 달리 별이 들어차 꽃이 피고 그 주변의 식물들은 초록빛 잎을 반짝이는, 생명력을 보이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것들이 마치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을, 곧 손상되지 않고 모든 것이 ‘멀쩡하게’ 작동하는 사물들을 그려내고 유토피아적 기억을 생성하며 과거를 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멀쩡해진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레코드를 재생하지 못한 채, 마치 불구의 시간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유연하게 조정된 여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레코드 기계와 함께 주란과 연덕은 신나는 노래를 듣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운드트랙과 크레딧으로 뒤덮이는 암전 속에서 그들이 어떤 노래를 듣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이 환상의 세계 속에서 주란이 슈퍼불구라는 강제된 틀을 벗어나⁶⁵⁾ 연덕과의 쿼어한 관계 속에서 이어갈 미래에 대해 사유할 뚝은 이제 관객에게 주어진다. 비록 <경성학교>가 그려낸 이 환상 같은 장면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 <경성학교>는 주란과 연덕이 맞이할 이 불확정한, 미지의 시간을 역사 속에서 그려내며 관객들 또한 과거의 실패 속에서 현실을 다시 마주하고, 그렇게 쿼어·불구를 위한,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도록, 그와 같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을 남긴다.

64) Elizabeth Freeman, op.cit., xvi.

65) 이때 주란이 과거의 공간 속에서 서로의 비밀을 나눌 때, 주란이 연덕에게 밝힌 비밀이 자신의 병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변주된 과거의 공간이 정상화된 규범적 시간 밖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 시공간의 주란을 단순히 치유된 주란, 곧 지워진 장애의 시공간 속 주란으로 독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나가며

본 논문은 불구 이론의 관점에서 주란을 귀어한 슈퍼불구로 조명하며, 귀어한 슈퍼불구에 대한 상상력을 귀어하고 불구적인 관점에서 독해하고 귀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면서 <경성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하고자 했다. <경성학교>를 귀어하게 독해해 온 본 연구자의 이전 연구가 결말의 환상 속 축음기를 통해 대안적 시간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을 읽어냈다면⁶⁶⁾, 본 논문은 귀어-불구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경성학교>를 귀어-불구를 둘러싼 폭력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그와는 다르게 살아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고 그에 응답하도록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는 텍스트로 읽어보고자 했다. 강제적 비장애 신체성 체계와 강제적 이성애 체계의 폭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양태를 교묘히 바뀌오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⁶⁷⁾ <경성학교>는 이와 같은 강제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폭력의 역사를 환기하면서 귀어-불구 존재의 다른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하기 위해 현재를 다시 사유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에 더해 본 논문이 제시한 귀어-불구 시간성의 틀은 <경성학교>가 지니는 또 다른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게 한다. 2절에서 언급했듯, 제국에 의해 교장의 실험이 좌절되고 주란과 연덕의 탈출이 실패하며 이들이 제국의 남성 군인들로 둘러싸여 벗어나기 어려운 설계 속 갇힌 구조에 놓

66) 이문우, 앞의 논문, 2021.

67) 맥루어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문화적 다양성의 담론 속에서 이성애비장애 주체가 귀어-불구 존재를 “유연하게” 수용하는 모습이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어, 불구 존재 또한 서사 속에서 이성애, 비장애 주체에 유연하게 순응하고 종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맥루어의 분석 속에서 강제적 비장애 신체성 체계와 강제적 이성애 체계는 여전히 견고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양상이 이전과 같이 적나라한 힘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Robert McRuer, op.cit., pp.1-32를 참고할 것.

여있다는 점은, 소녀들을 비롯해 주란과 교장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규범이 귀여한 초과, 혹은 과잉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들을 이성애의 질서 속에 옥여넣는 이성애규범적인 폭력으로써 작동해 왔음을 상기시킨다. 더불어 경성학교는 갈 곳 없이 버려져 새로운 생활에 대한 꿈을 품고 온 소녀들, 혹은 도쿄 유학이라는 말에 따라온 여학생들을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며, 그들을 체제에 길들이고 착취하고자 하는 일본 제국의 기획을 시사하는 공간으로 드러나며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층위에서 해석될 여지를 보인다.⁶⁸⁾ 이와 같은 지점에서 <경성학교>는 현존하는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 떠오르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 사이의 귀여한 관계를 리얼리즘 서사가 아닌 장르 영화라는 재현의 장으로 끌어오면서 그 안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드러낼 수 없었던 귀여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경성학교>는 재현의 장 밖에 놓여 쉽게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본군 ‘위안부’ 서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공적인 역사 기술의 바깥에 놓여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역사의 타자로서 귀여한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그려내는 텍스트로 그 중요성을 지닌다. 비록 <경성학교>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재현의 구성은 이후 더 다양한 방식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

68) <경성학교>와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연결해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연구들이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한 연구로는 김소연, 앞의 논문; 이문우, 앞의 논문, 2025. 이외 <경성학교>의 여학생들을 “일본군 ‘위안부’의 알레고리로도” 독해할 수 있다며 간략하게나마 그 가능성을 제시한 『조선의 귀여』에 대한 허운의 서평(허운, 「번역된 책수열리터, 식민지 조선의 귀여와 만나다」,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2018). 그리고 project38이 “전쟁과 여성 영화제”에서 <경성학교> 상영 후 진행한 관객과의 대화도 <경성학교>와 위안부 서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독해를 이끌어낸다. 관련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 손희정, 심혜경, “[WoWFF_전쟁과 여성영화제] “경성학교 : 사라진 소녀들” 씨네토크 ‘소녀, 강제동원, 전쟁병기’” <https://www.youtube.com/watch?v=s2g-lh35iA4&list=PLha91rDbiQmNB_0LLratF0ahZ3YFjIM-N&index=1&t=1349s> 2023.06.30. 진행, 2023.08.30. 등록, 검색일자: 2026.07.20.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망각된 과거, 혹은 기입되지 못한 역사를 재현의 장 안에 침투시키며, 귀어·불구가 삭제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귀어·불구 시간성을 통해 떠오르지 못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귀어·불구 존재를 재현하는 것은 언젠가 도래할 귀어·불구의 다른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경성학교>가 그려내는 귀어·불구 시간성과 그를 통해 떠오르는 사유를 향한 윤리적 요청은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실패의 기록으로 체념 속에 남겨두지만은 않고,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귀어·불구의 미래를 써내려 갈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혜영 감독,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2015.

2. 단행본

김은정, 강진경·강진영 옮김, 『치유라는 이름의 폭력: 근현대 한국에서 장애·젠더·성의 재활과 정치』, 후마니타스, 2022.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사계절출판사, 2021.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손홍일 옮김, 『보통이 아닌 몸: 미국 문화에서 장애는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그린비, 2021.

배리 랭포드, 방혜진 옮김, 『영화 장르: 할리우드와 그 너머』, 한나래출판사, 2010.

수잔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출판사, 2013.

앨리스 케이퍼, 이명훈 옮김,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오월의봄, 2023.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1.

Bonnie Ruberg, *Video Games Have Always Been Queer*,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9.

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 *Narrative Prosthesis: Disability and the Dependencies of Discours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David T. Mitchell and Sharon L. Snyder, *The Biopolitics of Disability*,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5.

Elizabeth Freeman, *Time Binds: Queer Temporalities, Queer Histori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Mel Y. Chen, Alison Kafer, Eunjung Kim & Julie Avril Minich, *Crip Genealogie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23.

Robert McRuer,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3. 논문 및 기타

- 김소연, 「초능력 영화와 포스트바디의 알레고리적 존재론-〈초능력자〉,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엄력〉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인문학연구소, 제29집, 2018.
- 김은정, 「한국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소녀의 재현 양상 연구-〈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마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7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1.
- 이명훈, 「불구는 왜 급진적인가 : 불구의 관점으로 교육을 재상상하기」, 『오늘의 교육』, 교육공동체벗, 2024.
- 이문우, 「소녀 괴물과 퀴어한 신체」, 『황단인문학』 제8호, 인문학 연구소, 2021.
- 이문우, 「식민지 경성과 레즈비언 로맨스, 새로운 네이션에 대한 상상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아가씨〉, 〈유령〉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3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5.
- 이현중, 『슈퍼히어로 영화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전예원, 「한국 여성영화의 여학교 표상과 퀴어 재현의 문제 -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1999),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2015)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26.
- 조한기, 「식민지 조선의 SF적 재현 양상 연구: '경성학교'와 '경성 크리처'의 포스트휴먼 캐릭터를 중심으로」, 『씨네포럼』, 영상미디어센터 제48호, 2024.
- 조혜영, 「특집 몸 내러티브」 신체에서 신체로 미끄러지기 - 디지털 블록버스터 관객성은 어떻게 장애화된 신체를 대가로 구성되는가?, 『문학동네』 제28권 제2호, (주)문학동네, 2021.
- 조혜영, 손희정, 심혜경, 「[WoWFF_전쟁과여성영화제] “경성학교 : 사라진 소녀들” 씨네토크 '소녀, 강제동원, 전쟁병기'“ <https://www.youtube.com/watch?v=s2g-lh35iA4&list=PLha9lrDbiQmNB_0LLratF0ahZ3YFjIMN&index=1&t=1349s> 2023.06.30. 진행, 2023.08.30. 등록 (검색일자: 2026.07.20.)
- 하대청, 「슈퍼휴먼으로 거듭난 장애인: 〈아바타〉, 트랜스휴머니즘, 교정의 명령」,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2016.
- 허운, 「번역된 섹슈얼리티, 식민지 조선의 퀴어와 만나다」,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2018.

- Carrie Sandahl, "QUEERING THE CRIP OR CRIPPING THE QUEER? Intersections of Queer and Crip Identities in Solo Autobiographical Performanc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9:1-2,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 Carrie Sandahl, "It's All the Same Movie: Making Code of the Freaks", *JCMS: Journal of Cinema and Media Studies*, 58:4, Ann Arbor, MI: Michigan Publishing, 2019.
- Jan Grue, "Ablenationalists Assemble: On Disability in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15:1,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21.
- Jon Heggstad, "On Frankenstein and How (Not) to Be a Queer Parent", *Victoriographies*, 13:2,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3.
- Sami Schalk, "Reevaluating the Supercrip." *Journal of Literary & Cultural Disability Studies*. 10:1,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16.
- Susan Stryker,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94.

Abstract

Queer Supercrip and Queer-Crip Temporality: Reckoning with Other Futures in *The Silenced*

Lee MoonWoo

This paper reads *The Silenced* through the lens of crip theory, revisiting its ending—which existing scholarship has interpreted as foreclosed by Juran's death—as an ethical text that, through the new interpretive framework of queer-crip temporality, calls on audiences to think other futures within history. To this end, this paper reads Juran as a queer supercrip set against the white, heterosexual, male supercrip heroes, and illuminates the headmistress as a mad scientist who exceeds imperial norms, and a queer mother who desires queer reproduction. It then reads Juran as a freak-monster and an agent of ability trouble, moving through a queer and crip reading that goes beyond the conventions of hateful representation surrounding disability and queerness. Through a queer and crip reading, this paper reads Juran who strikes back against the headmistress's curative violence—which has erased crip existence and the present—and thereby unfolds folded temporalities. Finally, this paper articulates queer-crip temporality as a new framework by bringing together Alison Kafer's crip time and Elizabeth Freeman's queer temporality. Through this framework, the paper situates *The Silenced* as an ethical text that critically illuminates the chrononormativity forged by the conjunction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compulsory able-bodiedness, invokes a history of violence, and enables us to rethink the present in order to more actively imagine other futures for queer and crip existence. Furthermore, this paper illuminates *The Silenced* as a text that harbors the possibility of composing, going forward, queer and crip stories that have been absent in the present field.

of representation.

Keywords: *The Silenced*, Crip Theory, Queer Super-Crip, Mad Scientist, Queer
Reproduction, Queer-crip Temporality

접 수 일: 2026년 8월 8일

심사기간: 2026년 8월 16일~2026년 8월 26일

게재결정: 2026년 9월 8일